



스타양행 - 스마트 LED 거울 '헤닝스'

# 40년 외길 스타양행 “거울도 진화한다”

집집마다 거울은 있다. 화장대와 욕실에도 빠지지 않는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편리성을 높이고 복합 기능을 적용한 거울도 선보이고 있다. 스타양행이 선보인 스마트 LED(발광다이오드) 거울 '헤닝스'는 거울 앞면은 일반경고이고 뒷면은 3배 확대경이다. 360도 회전해 편안하게 일반 비율과 확대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거울에 두 가지 색 LED등이 있어 야간 조명등(무드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김영석 스타양행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확대경을 사용하는 비율은 10%대로 낮아 성장성이 크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품력을 기반으로 판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울 개발만 40년 한우물▶

김 대표는 군대를 제대한 1979년 액세서리 제조 및 유통회사를 차렸다. 이후 1982년부터 거울 관련 제품을 제작·판매해오고 있다. 작은 손거울, 화장용 거울, 탁상용 거울, 벽거울 등 제품군도 다양하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쏟아져 고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온 결과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했다.

양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과 신용이 자산이다. 스타양행은 자체 디자인한 금형과 조립라인을 갖췄다. 이 회사가 한 해 생산하는 거울 제품은 500여 종, 500만 개에 이른다. 고부가가치 제품이 적어 매출은 50억원



김영석 스타양행 대표가 스마트 LED 거울 '헤닝스'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자체 디자인, 조립설비 갖춰 중국 저가제품 공세에도 '긱긱'

3배 확대경·무드등 장착 신제품 '미국·동남아 해외시장 공략'

수준이다. 김 대표는 “거울 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사업을 유지해온 비결은 디자인 인력을 두고 꾸준히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한 게 스마트 LED 거울이다. 가격은 9만 6000원. 201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제품기술공정개발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제품이다. LED 램프가 거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정전기처럼 금속성 소재가 거울과 램프에 연결돼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램프는 붉은색(열)과 흰색(냉) 컬러 두 가지다. 안방 화장대에 놓으면 굳이 전장 환경 등을 켤 필요가 없다.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대에 두면 조명등 역할까지 한다. 확대경을 활용하면 얼굴에 정교하게 화장을 할 수 있다.

### ◀고부가가치 거울로 해외시장 공략▶

김 대표는 지난해 LED 거울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 램프를 켜 뒤 15분 뒤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추가했다. 건전지로도

스타양행	
설립	1979년, 법인등록 1998년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제품	스마트 LED 거울 헤닝스
특징	일반경고와 3배 확대경으로 구성 15분 후 자동 점멸

작동할 수 있게 했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다.

김 대표는 올해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품하고, 자체 부스를 차릴 계획이다. 소장 가치가 있는 리빙 문화상품으로 거울을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기존 유통 채널에서도 마케팅을 강화한다. 메탈과 합성수지 혼합인 제품의 프레임(틀) 소재와 회색인 프레임 색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I 스피커를 통해 전등을 켜고 끌 수 있게 한다는 구체적인 제품 구상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바이오 빅데이터·AI 등에 투자” (안공지능)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신약 개발 등도 한국과 협력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K바이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임상시험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직접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의 한국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신약 연구개발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바이오 인력 육성,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요한손 회장은 지난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내년부터 5년간 7467억원을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바이오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항암제 개발 강화, 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항암제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등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5000만달러(약 1245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 쇠데르텔리에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에서 KOTRA,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의 향서를 교환했다.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신약 개발,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멘토링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과 스웨덴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지로 바이오헬스산업 협력을 꼽고 있다”며 “한국이 아시아 바이오헬스 시장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앞으로 국내 투자 및 협력을 추진하는 해외기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목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열린 '한·벨기에 라이프사이언스 심포지엄'에는 필리핀 라오폴드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을 비롯해 벨기에 제약 바이오기업인 53명이 참석했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대사관과 투자청은 국내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 “환자 편의성 강화해 유럽 시장 석권”

삼성바이오에피스  
임랄디 보관기간 두 배로 늘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랄디(성분명 아달리무맙·사진)의 환자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6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임랄디의 상온 보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리는 내용의 라벨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은 단백질 등 생물학적 제제가 주성분이어서 용법과 용량에 따른 보관 가이드라인이 엄격하다. 오리지널 제 품인 애브비의 휴미라와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25도 이상에서 14일까지만 보존할 수 있다. 류머티즘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치료제 보관 기간 제약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임랄디가 아달리무맙 제제로는 최초로 보존 기간을 2배로 늘리면서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유럽에 출시된 임랄디는 지난 1분기까지 누적 매출 5230만달러(약 580억원)를 기록하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나온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럽류머티즘학회'에 참가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사용 편의성을 적극 강조했다. 환자들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꾸준히 투여하려면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보다 스스로 놓을 수 있는 피하주사형이 편리하다. 이 때문에 바이오기업들은 경쟁 제품보다 덜 아프고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다.

임랄디는 손에서 주사가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을 처리하면서 라텍스 알레르기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박상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부장(전무)은 “임랄디의 보존 기간 연장 승인은 회사의 우수한 R&D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 환자의 사용 편의성을 더 높여 임랄디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드리드=박상의 기자 dirn@hankyung.com

휴대용 냉장약통, 세척쉬운 스테인리스 빨대...

## 30개국 '여성 발명왕' 제품 한자리에

### 뉴스카페

#### 2019 여성발명왕 엑스포 개최

밖에서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을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냉장약통(사진), 산책 후 돌아온 반려견의 다리만 씻길 수 있는 반려견 샤워기..

여성이 발명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여성발명왕 엑스포'에 출품된 제품들이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매년 여성발명왕 엑스포를 열어 여성이 발명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한다. 여성 발명 기업인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해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서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세계 30개국의 발명품과 국내 90개 기업의 발명품 등 320여 개가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에



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출품작은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다. 이희은 잇걸러 대표는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인 퍼스널 컬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색상진단판을 출품했다. 농동자 머리카락 등 타고난 신체 색상이 어떤 종류의 색과 어울리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환경문제도 떠오른 플라스틱 대체제도 나온다. 하나연 씨는 세척이

쉬운 스테인리스 빨대를 출품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존 스테인리스 빨대는 내부를 전용 세척솔로 닦아야 해 세척이 어려웠다. 이 제품은 빨대를 두 개의 반원통 형태로 분리할 수 있다. 빨대 내부를 눈으로 보면서 안쪽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다.

김지희 스튜디오크로스컬처 대표가 내놓은 노인돌봄 로봇은 홀몸노인의 건강관리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제품이다. 외관은 아이 모습을 한 인형에 가깝다. 간단한 말을 하면 대답을 하고 약 복용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인형이다. 머리·손·목 등 7개 센서를 달았다. 장시간 움직임이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 NEW 새로 나왔어요

#### 현대렌탈케어 '큐밍S 플러스'



현대렌탈케어는 신제품 정수기 '큐밍S 플러스'(사진) 시리즈 6종을 출시했다. 폴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갖춘 정수기로 일반형 4종, 고급형 2종으로 구성했다. 기존 '큐밍S' 모델보다 냉수 용량을 10% 늘렸다. 기호에 따라 냉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수 조절 노브를 달았다.

고급형인 '큐밍S 플러스 살균' 제품은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UV(자외선) 살균 모듈을 냉수 출수구와 저수조에 적용했다. 하루에 네 번, 1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수 출수구와 저수조에 UV-LED 빛이 나와 유해 세균을 제거한다.

월 렌탈료는 2만원이다. 기존 36개월인 의무 사용기간을 48개월이나 60개월로 연장해 계약하는 신규 고객에게 렌탈료를 2000~4000원 할인해준다. 제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면 렌탈료 할인 폭이 더 커진다.

HYUNDAI DEPARTMENT STORE GALLERY

## h point

###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버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il | 더한성닷컴 | H패션몰 | 현대워크룸 | 현대어린아이기술관